

한·일 지방정부의 지방세 수입구조 현상과 요인*

김용민**
kymin@bnue.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주성분분석에 의한 지방세 수입구조 분석 |
| 2. 한·일 지방세 수입의 현상 | 5. 마치며 |
| 3. 주성분분석에 의한 지역경제 구조분석 | |

主題語: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경제력(Economic power),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지방분권(Decentralization), 경제구조(Economic structure)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한·일 지방정부의 지방세 수입구조를 지역경제력과의 관계를 통해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도시의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의 주체가 국가에서 도시로 전환되면서 지방정부의 지방세수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지역경제력과의 관계를 통해 한·일 양국을 비교하려는 것이다.¹⁾ 분석대상은 광역자치단체이다.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에 위치하여 연결자 역할을 하고 있고 도시 간 경쟁의 주체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중심적 과제는 광역도시의 경제력과 지방정부의 지방세수입 구조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²⁾ 지역경

* 이 논문은 2015년도 부산교육대학교 교내연구과제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조교수

- 1) 분석대상은 한국의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16개 광역도시(광역자치단체)와 일본의 47개 광역도시(도도부현)이다.
- 2)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경제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 중 인구고령화 문제가 지역경제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일 양국의 경제구조가 인구고령화에 이해 영향을 받고 있다. 인구구성의 변화는 지역경제의 수급에 영향을 미쳐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지역일수록 생산성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지역 간 격차의 확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용희(2010)『동북아경제』두남, pp.183-184

제의 경쟁력은 지역의 경제력과 재정력을 토대로 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도시의 경제력과 지방세수입 구조분석은 지역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요인의 도출과 더불어 경쟁력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지방세수입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경제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지방세 확충을 위한 감면 및 징수율 조정 등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완규·이삭(2013), 김종구(2007), 박병희(2002) 등의 연구가 있다.

박완규·이삭(2013)은 15개 시·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 지방세와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에서는 지방세와 재정지출 모두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재정지출의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경제규모의 격차도 작용하지만, 지방세와 재정지출의 성질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다.³⁾

김종구(2007)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1995년에서 2005년까지를 분석대상으로, 지역 간 격차와 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 패널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총생산이 안정적으로 수렴하고 있지만, 속도가 느려 절대적 불평등도 지수와 상대적 불평등도 지수에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력의 격차는 자본의 탄력성, 지방재정지출의 탄력성, 기술진보율 등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⁴⁾

박병희(2002)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배분이 지역경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역진성, 누진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세수입은 지역총생산과 지역 내 자산대비에서 역진적으로 나타났고, 지방교부세는 지역총생산과 지역 내 자산대비에서 누진적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지방세수입 구조의 누진성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⁵⁾

일본에서는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입에 대한 연구가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요인분석과 재정격차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小林航(岡部真也)(2011), 菅原広太(2006) 등의 연구가 있다.

3) 박완규·이삭(2013)「지방세 지출이 지역경제 및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재정정책논집』제15권 제2호, 한국재정정책학회, pp.31-60

4) 김종구(2007)「지역경제력 격차와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 - 동태적 패널분석의 적용」『한국동서경제연구』제19권 제1호, 한국동서경제학회, pp.119-142

5) 박병희(2002)「지역경제력과 지방세 수입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재정논집』제16권 제2호, 한국 재정·공공경제학회, pp.119-137

小林航·岡部真也(2011)는 2007년의 재원이양이 지방세 편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에서는 2000년대 도부현세(道府縣稅)의 지방세 편재가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관찰되었던 수준보다는 축소되었고 재원이양의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⁶⁾

菅原広太(2006)는 지니계수의 요소분해를 통해 분배측면에서 지방교부세를 분석하였다.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누진도가 상승하고 있고 지역 특성화가 진행되면서 분배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세수증대의 효율성뿐 아니라 분배측면에서도 지방교부세의 재분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⁷⁾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경제와 지방정부의 지방세수입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를 둘러싼 경제현상의 변화가 지역경제력과 지방세수입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시하고 있다. 한일 양국 모두 지방세가 조세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불과하다.⁸⁾ 그러나 지역경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력과 재정력의 강화가 필요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양 변수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살펴보고자 하는 바를 질문 형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 지방정부의 지방세 수입구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지방정부의 조세합수를 구할 것이다. 둘째, 지역경제와 지방세 수입구조와의 연계는? 이와 관련하여 지역경제와 지방세 수입구조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다시 통합하여 지역경제와 지방세 수입구조와의 관계를 파악할 것이다. 셋째, 한일 양국 광역도시 간 경제협력의 가능성은? 이와 관련하여 주성분 분석을 통해 파악한 지역경제와 지방세 수입구조를 토대로 지역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지방세수입 현황과 경제구조와의 관계를 중회귀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주성분분석에 의한 지역경제 구조분석, 제4장에서는 주성분분석에 의한 지방세수입구조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 제5장은 결론부분으로 분석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설명한다.

6) 小林航·岡部真也(2011)「地方税の遍在性に関する要因分析」『フィナンシャルレビュー』第105号, pp.4-20

7) 菅原広太(2006)「地方財源の地域間遍在：地域間税収格差と地方交付税の再分配効果」『ORC Discussion paper series』No. REGION-16, pp.1-19

8) 2012년을 기준으로 일본의 지방세 수입은 전체수입의 34.5%를 기록하고 있다. 総務省(2014)『地方財政の状況』, p.13. 한국의 경우 지방세가 2006년 23.0%, 2008년 21.4%, 2012년 21.0%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3).

2. 지방세 수입의 현상

2.1 지방세 수입과 지역총생산

지방세 수입은 지역경제 구조를 반영한다.⁹⁾ 이는 지역의 경제구조가 장기적으로 축적되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수입의 변화가 작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방세수입이 지역총생산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를 탄력성 개념을 이용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탄력성 개념은 지역총생산이 1% 변화했을 때 지방세수입이 어느 정도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분석에서는 설명변수와 목적변수를 각각 지역총생산과 지방세수입으로 설정하고, 이를 자연대수로 전환하여 탄력성을 추계하고자 한다. 추계식은

$$\ln(\text{지방세}) = \alpha + \beta \ln(\text{지역총생산})$$

로 설정하면 β 가 탄력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추계 결과를 나타낸 것이 <표 1>과 <표 2>이다.

<표 1>은 일본의 지방세수입을 추계한 것이다. 일본은 담배세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도부현 민세(개인 및 법인), 사업세(개인 및 법인), 지방소비세, 부동산거래세에서 탄력성이 1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생산이 증가할수록 지방세수입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지역총생산의 증가가 지역소득과 소비를 늘려 지방세수입 증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9) 일본의 경우, 지방세에는 도부현민세(道府県民税)와 행정구역상 하부에 해당하는 시정촌민세(市町村民税)가 있다. 도부현민세에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보통세에는 도부현민세(개인, 법인, 이자, 배당), 사업세(개인, 법인), 지방소비세, 부동산거래세, 도부현 담배세, 골프장 이용세, 자동차 취득세, 경유 거래세, 자동차세, 광구세, 고정자산세(특레), 법정외보통세가 있다. 목적세에는 법정 목적세(수렵세)와 법정외목적세로 구성되어 있다. 시정촌민세에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보통세에는 시정촌민세(개인, 법인), 고정자산세, 경자동차세, 시정촌담배세, 광산세, 특별도지보유세, 법정외보통세가 있다. 목적세에는 법정목적세(입탕세, 사무소세, 도시계획세, 수리지익세, 공동시설세, 주택개발세)와 법정외목적세가 있다. 한국의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표 1> 일본의 지방세수입 탄력성

주요 세목	탄력성(계수 β)	계수(β)의 t값	결정계수
도부현민세 총액	1.071	68.532	0.991
도부현민세(개인)	1.098	38671	0.971
도부현민세(법인)	1.149	33.344	0.961
사업세(개인)	1.237	29.632	0.951
사업세(법인)	1.109	39.981	0.972
지방소비세	1.247	25.885	0.935
부동산거래세	1.101	33.207	0.959
담배세	0.932	36.405	0.966
자동차세	0.866	24.695	0.929

자료) 総務省, 『平成21年度 地方財政統計年報』(<http://www.soumu.go.jp> 검색일, 2015년 4월 12일).

<표 2> 한국의 지방세수입 탄력성

주요세목	탄력성(계수 β)	계수(β)의 t값	조정결정계수
지방세 총액	0.975	11.755	0.901
취득세	0.961	9.497	0.856
등록면허세	1.307	10.546	0.881
지방소비세	0.648	6.726	0.746
지역자원시설세	0.978	10.179	0.872
지방교육세	0.925	8.295	0.818
주민세	0.589	3.819	0.475
지방소득세	1.203	19.136	0.961
재산세	1.098	7.861	0.802
자동차세	0.851	9.487	0.855
담배소비세	0.849	10.162	0.872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5년 4월 19일)

<표 2>는 한국의 지방세수입을 추계한 것이다. 한국은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재산세에서 탄력성이 1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목은 지역총생산이 증가할수록 지방세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주요 세목에서는 탄력성이 1이하로 나타나 지역총생산의 증가가 지방세수입 증가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한일 지방세수입의 탄력성 분석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탄력성이 높게 나타난 세목이 많았다.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일본은 과세대상이 소득과 소비가 중심이라는 점에서 지역총생산의 증가가 지방세수입 증가로 연계되었다. 한국의 경우, 탄력성이 일본보다 낮게 나타났고 과세대상도 재산관련 항목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세수입 증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거래과정에서 생성되는 지방세 비중이 높아 지방세가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경우 지역총생산 증가의 지역정책은 지방정부의 재정력 확보에 기여하고, 한국의 경우 지역총생산뿐 아니라 세원의 다양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지역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지방세 수입의 중회귀 분석

앞에서 지역총생산의 증가가 지방세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확장하여 지역의 경제변수와 지방세수입과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에서는 양국의 주요 지방세를 목적변수로 설정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산업구조와 인구구성을 설명변수로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의 생산액, 2차 산업의 생산액, 3차 산업의 생산액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인구구성에서는 유소년인구비율, 생산가능인구비율, 노인인구비율을 설명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분석에서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피하기 위하여 상관분석 및 변수선택(후진제거법: Backward elimination method)법을 이용하였고, 목적변수와 설명변수를 자연대수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표 3>과 <표 4>는 지방세수입에 대응하는 설명변수의 계수, t 값, 그리고 결정계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3>은 일본의 주요 지방세수입과 경제항목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지방세수입과 산업구조와의 관계에서 1차 산업은 도부현민세 총액, 자동차세, 도부현담배세의 설명변수로 채택되었지만, 계수의 값이 2차와 3차 산업보다 낮게 나타났다. 지방세수입의 관점에서 1차 산업은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산업은 사업세(개인), 도부현담배세를 제외한 지방세에서 설명변수로 채택되어 지방세수입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산업은 부동산거래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에서 채택되었고, 계수의 값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세수입 구조에서 3차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구성에서는 유소년인구비율과 노인인구비율이 설명변수로써 채택되지 못하였고, 생산가능인구비율의 경우 부동산거래세에서 채택되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소득이 증가하면 부동산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일본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거래세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표 3> 일본의 주요 지방세수입과 경제 항목과의 관계

주요 세목	1차 산업(t 값)	2차 산업(t 값)	3차 산업(t 값)	생산가능 인구(t 값)	결정계수
도부현민세 총액	0.257(8.897)	0.759(6.402)	0.838(22.280)	0.993
도부현민세(개인)	0.244(4.453)	0.746(11.804)	0.977
도부현민세(법인)	0.365(5.306)	0.782(10.459)	0.962
사업세(개인)	1.221(32.130)	0.957
사업세(법인)	0.402(7.299)	0.706(12.418)	0.976
지방소비세	0.174(1.717)	1.066(10.189)	0.938
자동차세	0.170(4.521)	0.374(0.389)	0.404(7.601)	0.958
부동산거래세	0.987(22.507)	3.041(2.862)	0.973
도부현담배세	0.129(4.887)	1.133(18.001)	0.981

자료) 総務省, 『平成21年度 地方財政統計年報』(<http://www.soumu.go.jp> 검색일, 2015년 4월 12일).

<표 4>는 한국의 주요 지방세수입과 경제항목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지방세수입과 산업구조의 관계에서 1차 산업은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의 설명변수로 채택되었지만, 계수의 값이 작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세수입 확대의 관점에서 기여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한국의 주요 지방세수입과 경제 항목과의 관계

	1차 산업(t 값)	2차 산업(t 값)	3차 산업(t 값)	생산가능 인구(t 값)	결정계수
지방세 총액	0.165(4.917)	0.839(19.798)	0.980
취득세	0.179(3.197)	0.818(11.561)	0.944
등록면허세	0.159(3.853)	0.915(17.528)	0.973
지방소비세	0.115(2.714)	0.602(8.047)	0.832
지역자원시설세	0.245(4.059)	0.764(10.008)	0.936
지방교육세	0.940(15.700)	0.942
주민세	0.521(5.759)	0.682
지방소득세	0.368(5.207)	0.758(7.665)	2.536(1.795)	0.940
재산세	1.133(18.001)	0.956
자동차세	0.232(4.695)	0.657(10.510)	0.944
담배소비세	0.038(2.204)	0.121(4.304)	0.753(22.393)	0.984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5년 4월 19일)

2차 산업은 지방교육세,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에서 채택되었고, 3차 산업은 주민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에서 모두 채택되었다. 이는 지방세수입에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특히 3차 산업은 계수 값이 높게 나타나 지방세수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인구구성에서는 유소년인구비율과 노인인구비율이 설명변수로 채택되지 못하여 이들 변수가 기여도 측면에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생산가능인구비율은 지방소득세 항목에서 설명변수로 채택되었고, 계수 값도 높게 나타나 지방세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소득세가 지역경제가 성장할수록 지방세수입 증가로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대해석하면 지방세 과세대상이 재산관련에 집중되어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진행된다면 과세대상을 소득과 소비로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에서 한일 양국의 지방세수입 증가요인이 인구구성보다는 지역경제 산업구조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특히 3차 산업이 지방세수입의 크기를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지방세수입의 크기를 좌우하는 산업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주성분분석에 의한 지역경제 구조분석

지역경제 구조분석은 다수의 경제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변수 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 언급하기 어렵고 해석 또한 쉽지 않다. 따라서 변수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구별하지 않고 변수 간 상관관계에 주목하여 변수를 유형화하고 각 그룹에 의미를 부여해 지역경제의 특징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지역경제의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¹⁰⁾ 이 분석은 해석하고자 하는 다차원적 데이터에 포함된 정보의 손실을 가능한 적게 해서 2차원 혹은 3차원의 데이터로 축약하는 방법이다.¹¹⁾

경제구조 분석에서는 1인당 개인소득, 2차 산업비율, 3차 산업비율, 생산가능인구비율, 노인인구비율의 변수를 사용한다. 이는 산업과 인구구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관계를, 인구구성 측면에서는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인구비율의 관계를 주성분분석에 의해 파악하려는 것이다. 산업구조는 지역경제 구조의

10) 김용민(2011)「일본의 광역별 경제구조 변화-주성분분석에 의한 경제구조의 유형화를 중심으로-」『일본 근대학연구』제34집, 일본근대학회, pp.389-403

11) 노형진(2005)『다변량분석의 이론과 실제』형설출판사, p.430

핵심을 이룬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변화, 예를 들어 인구고령화는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지역경제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²⁾ 이러한 의미에서 산업구조 측면과 인구구성 측면의 분석은 의미가 있다.

주성분분석에서는 상관행렬방식을 채택하여 고유 값이 1이상인 상위 2개의 주성분을 사용하고, 제1주성분과 제2주성분 점수를 토대로 지역을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지역 간 경제구조를 파악한다. 주성분분석에 의한 지역경제구조의 고유벡터를 나타낸 것이 <표 5>와 <표 6>이다.

<표 5> 일본 지역경제 구조의 고유벡터¹³⁾

고유벡터	제1주성분	고유벡터	제2주성분
생산가능 인구비율	0.605	2차 산업비율	0.661
1인당 개인소득	0.501	노령인구 비율	0.189
2차 산업비율	0.172	1인당 개인소득	0.140
3차 산업비율	-0.096	생산가능 인구비율	-0.229
노령인구 비율	-0.587	3차 산업비율	-0.675

자료) 総務省, 『平成21年度 地方財政統計年報』(<http://www.soumu.go.jp> 검색일, 2015년 4월 12일).

<표 5>의 고유벡터에서 제1주성분이 정(正)의 값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생산가능인구비율이고, 부(負)의 값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 노인인구비율이다. 따라서 제1주성분은 인구구성과 경제력과의 관계로 해석이 가능하다. 제2주성분은 2차 산업과 3차 산업과의 관계분석이 가능하다. 그것은 제2주성분에서 정(正)의 값으로 2차 산업이 높게 나타났고, 3차 산업이 부(負)의 값으로 나타나, 산업구조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제1주성분을 가로축으로 하고 제2주성분을 세로축으로 설정했을 경우, 가로축이 인구구성비율과 경제력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세로축이 산업구조 측면을 나타낼 수 있어 지역의 유형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12) Aoki, M. and H. Yoshikawa(2002) “Demand Saturation/Creation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48, pp.127-154

13) 제1주성분 고유 값이 2.309, 기여율이 46.2%, 제2주성분 고유 값이 1.552, 기여율이 41.8%로 나타나 누적기여율이 88.0%로 지역경제 구조분석에 설명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자료) 総務省, 『平成21年度 地方財政統計年報』에 의거 작성.

<그림 1> 일본 지역경제의 주성분 점수 분포

<그림 1>는 주성분 득점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구조를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제1유형은 제1주성분과 제2주성분이 정(正)의 값으로 나타난 지역으로 생산가능인구비율과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이바라키(Ibaraki), 도치기(Tochigi), 군마(Gunma), 도야마(Toyama), 야마나시(Yamanashi), 기후(Gifu), 시즈오카(Shizuoka), 미에(Mie), 시가(Shiga), 아이치(Aichi), 히로시마(Hiroshima)의 11개로 나타났다.

제2유형은 제1주성분이 부(負)의 값, 제2주성분이 정(正)의 값으로 나타난 지역으로 노인인구비율이 높아 경제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단체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야마가타(Yamagata), 후쿠시마(Fukushima), 니가타(Nigata), 나가노(Nagano), 와카야마(Wakayama), 야마구치(Yamaguchi), 도쿠시마(Tokushima), 가가와(Kagawa), 에히메(Ehime), 사가(Saga), 오이타(Oita), 후쿠이(Fukui), 오카야마 Okayama), 홋카이도(Hokkaido)의 14개로 나타났다.

제3유형은 제1주성분과 제2주성분의 값이 부(負)로 나타나 노인인구비율이 높아 경제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단체로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으로는 아오모리(Aomori), 이와테(Iwate), 아키타(Akita), 고치(Kochi), 나가사키(Nagasaki), 구마모토(Kumamoto), 미야자키(Miyazaki), 가고시마(Kagoshima), 시마네(Shimane), 토토리(Tottori), 나라(Nara) 의 11개로 나타났다.

제4유형은 제1주성분이 정(正)의 값으로 나타났지만, 제2주성분이 부(負)의 값으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비율이 높고 경제력과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단체로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은 미야기(Miyagi), 사이타마(Saitama), 치바(Chiba), 도쿄(Tokyo), 가나가와(Kanagawa), 교토(Kyoto), 오사카(Osaka), 효고(Hyogo), 이시카와(Ishikawa), 후쿠오카(Fukuoka), 오키나와(Okinawa)의 11개로 나타났다.

일본의 지역경제와 비교하기 위해 <표 6>은 주성분분석에 의한 한국 지역경제 구조의 고유벡터를 나타낸 것이다. 제1주성분이 정(正)의 값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생산가능인구비율이고, 부(負)의 값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 노인인구비율이다. 그리고 제2주성분은 정(正)의 값으로 2차 산업이 높게 나타났고, 3차 산업이 부(負)의 값으로 나타나 산업구조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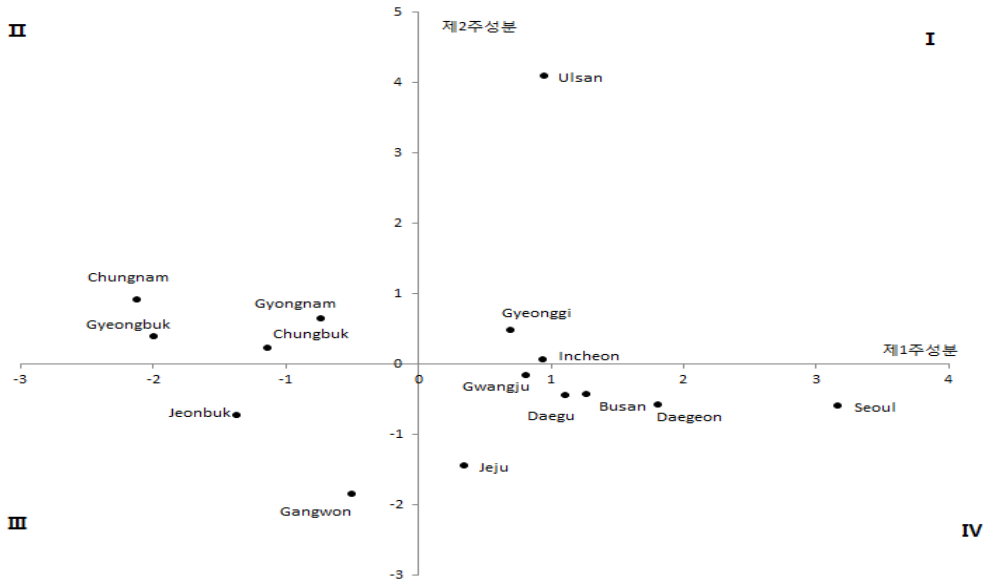
<표 6> 한국 지역경제 구조의 고유벡터¹⁴⁾

고유벡터	제1주성분	고유벡터	제2주성분
생산연령인구 비율	0.545	2차 산업비율	0.618
3차 산업비율	0.414	1인당 개인소득	0.441
1인당 개인소득	0.388	생산연령인구 비율	0.215
2차 산업비율	-0.336	노령인구 비율	-0.282
노령인구 비율	-0.518	3차 산업비율	-0.546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의거 작성.

일본의 지역경제 구조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면 제1유형은 생산가능인구비율과 2차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경기, 인천, 부산, 울산의 4개이다. 제2유형은 노인인구비율이 높아 경제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충남, 경북, 충북, 경남의 4개이다. 제3유형은 노인인구비율이 높아 경제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전남, 전북, 강원 3개이다. 제4유형은 제1주성분이 정(正)의 값으로 나타났지만, 제2주성분이 부(負)의 값으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비율이 높고 경제력과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광주, 대구, 제주, 대전, 서울의 5개이다. 이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2>이다.

14) 제1주성분 고유 값이 2.824, 기여율이 56.4%, 제2주성분은 고유 값이 1.346, 기여율이 34.3%로 나타나 누적기여율이 90.7%이다.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의거 작성.

<그림 2> 한국 지역경제의 주성분 점수 분포

이처럼 한일 양국의 지역경제는 지역 간 특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구조는 지역격차가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내재하고 있다. 즉,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균형을 달성하려는 지역경제정책을 중앙정부가 시행한다 해도 격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 균형이론에서는 생산함수, 한계생산체감함수 등이 제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산요소는 선별적으로 이동하고 외부효과,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균형이론이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시장메커니즘이 지역 간의 균형을 유지시키기 보다는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분산효과(Spread effect)와 역류효과(backwash effect)에 따라 시장메커니즘이 누적적으로 상향 또는 하향운동을 하면서 지역격차가 확대된다는 것이다.¹⁵⁾ 이는 지역경제가 갖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독자적인 성장모형을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지역격차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15) 정홍렬(2012)『지역경제학』시그마프레스, pp.180-182

4. 주성분분석에 의한 지방세 수입구조 분석

4.1 한일 지방세 수입구조

앞에서 한일 양국의 지역경제를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주의해야할 것은 지역의 유형이 고정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경제가 경기변동에 의해 집적효과의 상승으로 유형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경제의 유형화에 이어서 주성분분석에 의한 지방세수입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자. 분석은 양국 지방세수입 중 비중이 높은 세목들과 목적세를 대상으로 전개한다. 지방세수입은 지역별 격차가 있기 때문에 1인당으로 설정한다.

분석은 지역경제 구조분석과 동일한 상관행렬방식을 선택하고 고유 값이 1이상인 상위 2개의 주성분을 사용한다. <표 7>과 <표 8>은 양국 지방세수입에 관한 고유벡터를 나타낸 것이다.

<표 7> 일본 지방세수입의 고유벡터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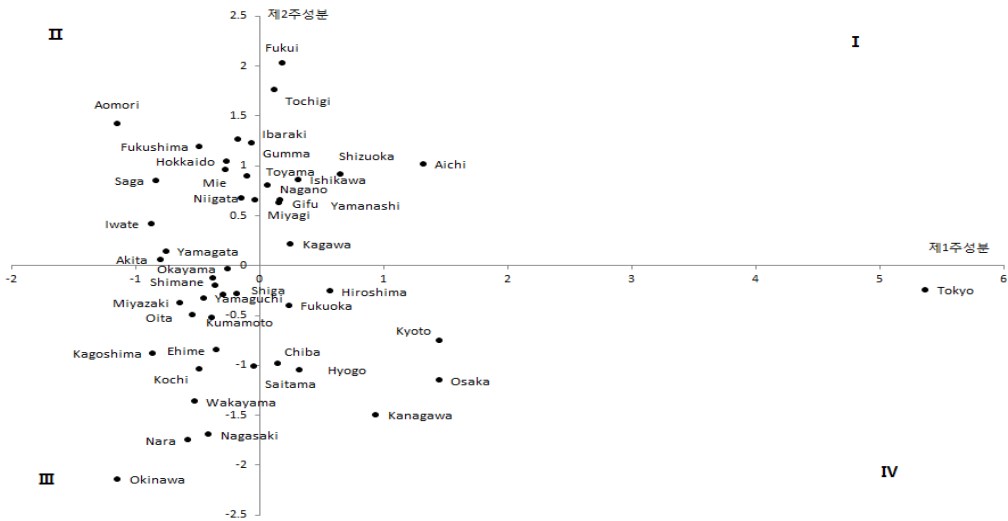
고유벡터	제1주성분	고유벡터	제2주성분
1인당 사업세(법인)	0.934	1인당 자동차세	0.827
1인당 도부현세(개인)	0.855	1인당 목적세	0.811
1인당 지방소비세	0.748	1인당 지방소비세	0.435
1인당 자동차세	-0.160	1인당 사업세(법인)	0.143
1인당 목적세	-0.373	1인당 도부현세(개인)	-0.028

자료) 総務省, 『平成21年度 地方財政統計年報』에 의거 작성.

<표 7>의 제1주성분은 자동차세와 목적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에서 정(正)의 값으로 나타났다. 제1주성분의 해석은 자동차세가 부(負)로 나타났지만, 목적세보다 값이 작게 나타나 지방세의 수입력으로 판단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제2주성분은 자동차세와 목적세의 값이 높게 나타났고, 도부현민세(개인)가 부(負)의 값으로 나타났다. 제2주성분은 자동차세의 값이 목적세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세목의 값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2주성분은 목적세의 수입력으로 해석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제1주성분에서 정(正)

16) 제1주성분 고유 값이 2.328, 기여율이 46.5%, 제2주성분의 고유 값이 1.152, 기여율이 31.0%, 누적기여율이 77.5%로 나타나 일정의 설명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의 값은 지방세의 수입력이 강하고, 부(負)의 값은 수입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2주성분에서 정(正)의 값은 목적세의 수입력이 강하고, 부(負)의 값은 수입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제1주성분을 가로축, 제2주성분을 세로축으로 설정한다면 가로축은 지방세의 수입력, 세로축은 목적세의 수입력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은 일본의 지방세수입 구조를 주성분분석의 점수분포를 토대로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자료) 総務省, 『平成21年度 地方財政統計年報』에 의거 작성.

<그림 3> 일본 지방세수입의 주성분 점수 분포도

<그림 3>의 제1유형은 제1주성분과 제2주성분이 정(正)의 값으로 나타난 지역으로 지방세의 수입력과 목적세의 수입력이 강한 지역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은 후쿠이(Fukui), 도치기(Tochigi), 아이치(Aichi), 시즈오카(Shizuoka), 이시카와(Ishikawa), 야마나시(Yamanashi), 미야기(Miyagi), 가가와(Kagawa), 나가노(Nagano)의 9개로 나타났다.

제2유형은 제1주성분이 부(負)의 값, 제2주성분이 정(正)의 값으로 나타난 지역으로 지방세의 수입력이 약하지만, 목적세의 수입력이 강한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아오모리(Aomori), 이바라키(Ibaraki), 군마(Gumma), 후쿠시마(Fukushima), 홋카이도(Hokkaido), 미에(Mie), 토야마(Toyama), 기후(Gifu), 니가타(Niigata), 사가(Saga), 이와테(Iwate), 야마가타(Yamagata), 아키타(Akita)의 13개로 나타났다.

제3유형은 제1주성분과 제2주성분의 값이 부(負)로 나타나 지방세의 수입력과 목적세의

수입력이 약한 지역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오카야마(Okayama), 시마네(Shimane), 토토리(Tottori), 도쿠시마(Tokushima), 시가(Shiga), 야마구치(Yamakuchi), 미야자키(Miyazaki), 구마모토(Kumamoto), 오이타(Oita), 에히메(Ehime), 사이타마(Saitama), 고치(Kochi), 가고시마(Kagoshima), 아카야마(Wakayama), 나가사키(Nagasaki), 나라(Nara), 오키나와(Okinawa)의 17개로 나타났다.

제4유형은 제1주성분이 정(正)의 값으로 나타났지만, 제2주성분이 부(負)의 값으로 나타나 지방세의 수입력이 강하지만, 목적세의 수입력이 약한 지역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치바(Chiba), 도쿄(Tokyo), 가나가와(Kanagawa), 교토(Kyoto), 오사카(Osaka), 효고(Hyogo), 후쿠오카(Fukuoka), 히로시마(Hiroshima)의 8개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일본의 지방세수입 구조에 대해 분석하였다. 동일방법으로 한국을 분석한 것이 <표 8>이다. 제1주성분은 등록면허세와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에서 정(正)의 값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교육세가 높게 나타나 제1주성분을 목적세의 수입력으로 해석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2주성분은 레저세를 제외한 세목에서 정(正)의 값으로 나타나 지방세의 수입력으로 해석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지방세 과세대상이 재산관련이고, 실제 등록면허세가 가장 높은 값으로 나타나 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지방세 수입분석과 동일방법을 취하지만, 해석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의 지방세수입 구조분석에서 제1주성분을 가로축, 제2주성분을 세로축으로 설정한다면 가로축은 목적세의 수입력이 강한 지역, 세로축은 지방세의 수입력이 강한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 한국 지방세 수입의 고유벡터¹⁷⁾

고유벡터	제1주성분	고유벡터	제2주성분
1인당 지방교육세	0.891	1인당 등록면허세	0.954
1인당 레저세	0.822	1인당 소비세	0.934
1인당 취득세	0.748	1인당 취득세	0.383
1인당 등록면허세	-0.614	1인당 지방교육세	0.194
1인당 지방소비세	-0.228	1인당 레저세	-0.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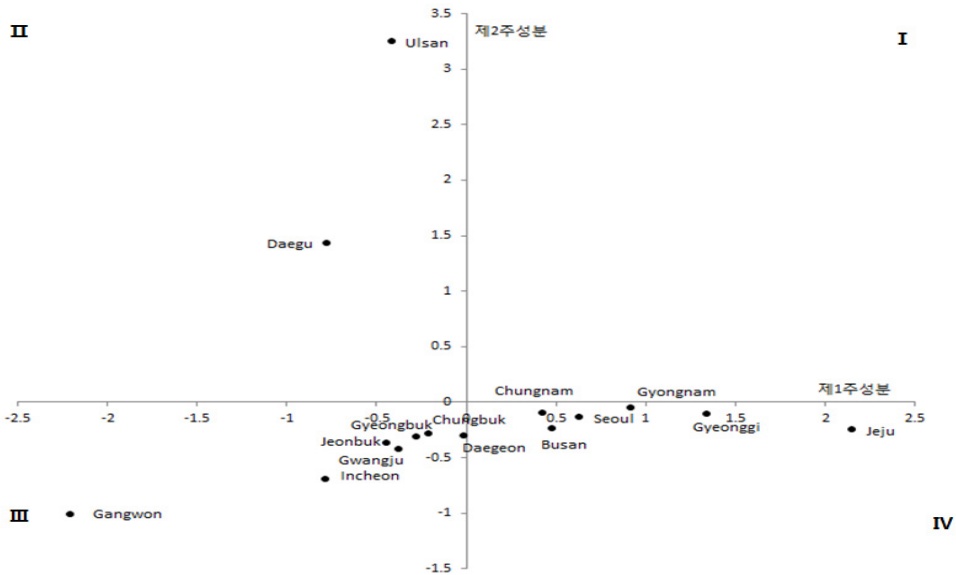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의거 작성.

<그림 4>의 제1유형은 제1주성분과 제2주성분이 정(正)의 값으로 목적세와 지방세의 수입력이 강한 지역으로 해석되지만, 해당되는 지역이 없었다. 제2유형은 제1주성분이 부(負)의

17) 제1주성분의 고유 값이 3.07, 기여율이 61.5%, 제2주성분의 고유 값이 1.05, 기여율이 21.0%, 누적기여율이 82.6%로 나타나 일정의 설명력을 갖는다.

값, 제2주성분이 정(正)의 값으로 나타난 지역으로 목적세의 수입력이 약하고 지방세의 수입력이 강한 지역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대구와 울산의 2개로 나타났다. 제3유형은 제1주성분과 제2주성분의 값이 부(負)로 나타나 지방세와 목적세의 수입력이 약한 지역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인천, 광주, 전북, 강원, 충북, 대전의 6개이다.

제4유형은 제1주성분이 정(正)의 값으로 나타났지만, 제2주성분이 부(負)의 값으로 나타나 목적세의 수입력이 강하지만, 지방세의 수입력이 약한 지역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제주, 경기, 전남, 서울, 충남, 부산의 6개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이 일본보다 지방세 수입구조가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중앙정부의 지역경제정책이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균형발전보다는 성장을 위한 선택과 집중에 편중하는 성장지상주의에 몰입하였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구조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자.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의거 작성.

<그림 4> 한국 지방세 수입의 주성분 점수 분포도

4.2 한일 지방세 수입구조의 특징

한일 양국은 장기적으로 축적되어 온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지방세수입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 간 경제규모의 차이는 지방세수입의 차이로 이어지며, 이를 보전하는 형식으로 지출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조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절제도에 의해 통제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세 회계구조는 양국 모두 일반회계와 복수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결산통계 상의 구분이다. 그것은 한국의 경우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의 3개로 구성되어 있고, 일본은 보통회계와 공영사업회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 수입구조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일본보다 징수세목이 비교적 간소하고¹⁸⁾, 재산세와 소비과세의 의존도가 높다. 지방세수입 구조에서도 행정구역 도(道)의 경우 일본의 현(縣)보다 기반이 약하지만,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높게 나타나 과세기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한국은 지방교육재정과 그 이외의 일반재정을 별도의 회계로 분리하는 이원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 일원운영의 일본과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지방세 체계를 소득·소비·자산으로 분류했을 때 자산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일본의 경우 소득과세가 약 50%를 차지하고 자산과세가 3분의 1수준에 머물러 있다.¹⁹⁾ 따라서 지방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한국은 재산과세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득 및 소비과세의 비율을 끌어올리는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한국의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⁰⁾ 앞에서 설명했듯이 한국과 일본은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수입의 비중이 다르다. 지방세 비중이 일본은 30%대, 한국은 20%대에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수입 구성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경우 2012년 기준 지방세 수입구성에서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2.4%라는 것이다. 이는 지방세 비중이 34.5%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²¹⁾ 한국의 경우 2011년 기준 평균 지방채 비중이 3.8%이다.²²⁾ 이러한 지표로 전체를 평가할 수 없지만, 한국의 지방정부가 일본보다 재정건전성을

18) 한국의 경우 세목별로 지방세가 징수되지만, 일본의 경우 개인, 법인뿐 아니라 교부세에서도 이자할교부세(利子割交付税) 등이 존재한다.

19) 국중호(2002)『한일지방세 구조와 세부담 특성비교』한국조세연구원, pp.60-61

20) 국중호(2005)「일본의 지방재정구조 및 삼위일체 개혁에 관한 고찰」『지방행정연구』19권 제1호, p.220

21) 総務省(2014)『地方財政の状況』, p.13

22) 허원재(2013)「지방채 비중, 지방재정건전성 판단의 충분한 잣대인가?」『KERI FACTS』, 한국경제연구원, p.1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양국 지방세 세입구성에서 첫째, 양국 모두 지방세 비중이 낮다. 둘째,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다. 셋째, 지방세입 중 지방채 의존도가 한국보다 일본이 높다. 양국은 지방세 비중이 낮고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방세제 체계에 차이가 있다.

5. 마치며

본 연구는 한일 광역도시(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제력과 지방세수입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광역도시가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중간적 존재인 동시에, 도시의 시대를 맞아 국가 간 경쟁주체로 전환되면서 독자적인 정책운동을 위해서는 지방세수입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논점은 첫째, 한일 지방정부의 지방세 수입구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둘째, 지역경제와 지방세 수입구조와의 연계 정도는?, 셋째, 한일 양국 광역도시 간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일 지방정부의 지방세 수입구조는 세원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탄력성 개념을 이용한 지역총생산과 지방세수입과의 관계에서 일본의 경우 일부 세목을 제외하고 탄력성이 1를 초과하였다. 이는 지역생산의 증가가 지방세 수입을 늘리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일부세목(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재산세)에서 탄력성이 1를 초과하였지만, 대부분의 세목이 1이하로 나타나 지역 총생산의 증가가 지방세수입에 기여하는 것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세 수입증가뿐 아니라 양국의 세원이 다르고 편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지방세수입과 경제변수와의 관계에서는 양국 인구구성보다는 지역경제 구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에서도 제3차 산업의 계수 값이 높게 나타나 지방세수입과 제3차 산업과의 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지역의 경제력과 지방세수입과의 연계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의 경제력과 지방세수입과의 연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제도적 측면과 지역별 경제력의 응집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지역경제의 경제력을 가늠하게 하는 제조업의 집적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구조가 소프트화 되어가고 있는 것도 작용하지만, 근본적으로 저출산에 영향으로

인구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지역경제의 수급구조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일 양국 광역도시 간 경제협력의 가능성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독자적 발전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정력을 동반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재원이양이 충분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경쟁의 대상이 국가가 아닌 도시라는 점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외부적 요인이 동력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의 확대와 확산은 지역경제 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함의하고 있다. 한일 광역도시 간 네트워크는 주성분분석에 의한 지역유형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제1유형에는 제2차 산업의 비중이 높다. 이는 양국 제1유형에 속하는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확대가 상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응용하여 제3차 산업이 강한 제4유형의 광역도시 간 경제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지역경제력과 지방세수입과의 관계분석은 결과해석에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지방세수입의 근원이 되는 지역경제 구조가 지역 간 네트워크 및 대외경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선불리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심화된 경쟁구도에서 독자적 발전모델의 구축을 위한 양국 광역도시 간의 네트워크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는다.

【參考文獻】

국중호(2002)『한일지방세 구조와 세부담 특성비교』한국조세연구원
 _____(2005)「일본의 지방재정구조 및 삼위일체 개혁에 관한 고찰」『지방행정연구』제19권 제1호
 김종구(2007)「지역경제력 격차와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 - 동태적 패널 분석의 적용」『한국동서경제연구』제19권 제1호, 한국동서경제학회
 김용민(2011)「일본의 광역별 경제구조 변화-주성분분석에 의한 경제구조의 유형화를 중심으로」『일본근대학연구』제34집, 일본근대학회
 노형진(2005)『다변량분석의 이론과 실제』형설출판사
 박병희(2002)「지역경제력과 지방세 수입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재정논집』제16권 제2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박완규·이삭(2013)「지방세 지출이 지역경제 및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재정정책논집』제15권 제2호, 한국재정정책학회
 정홍렬(2012)『지역경제학』시그마프레스
 이용희(2010)『동북아경제』두남
 허원제(2013)「지방채 비중, 지방재정건전성 판단의 충분한 잣대인가?」『KERI FACTS』한국경제연구원
 小林航·岡部真也(2011)「地方税の遍在性に関する要因分析」『フィナンシャルレビュー』第105号

菅原広太(2006)「地方財源の地域間遍在：地域間税収格差と地方交付税の再分配効果」『ORC Discussion paper series』No. REGION-16

総務省(2014)『地方財政の状況』

Aoki, M. and H. Yoshikawa(2002) “Demand Saturation/Creation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48

논문투고일 : 2015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07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07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7월 20일

<요旨>

한·일 지방정부의 지방세 수입구조 현상과 요인

본고는 지방세 수입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경제 경제력과의 관계를 통해 그 요인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지방세 수입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주요 지방세와 지역총생산의 탄력성 분석에서는 대부분이 1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총생산의 증가가 지방세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한다. 이를 토대로 한 중회귀 분석에서는 지방세 수입과 지역경제와의 관계에서 지방세 수입이 산업(2차 산업과 3차 산업)과 인구구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성분분석에 의한 지역경제와 지방세 수입구조의 분석에서는 2개의 주성분을 도출하여 주성분 점수를 토대로 지역을 4개로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지역경제력에 격차가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일수록 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A Study on Phenomena and Factors of Local tax revenu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in Korea-Japan

This is a paper with the purpose of analyzing Japanese local tax income system and we are going to draw a conclusion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ese local tax income system and local economic power. In the flexible analysis between main local tax and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ion (GRDP) to see local taxes income phenomenon, it showed one and more in most cases. This means that the increase in GRDP affect local tax income directly.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 found that local tax income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industry (2nd and 3rd) and population composition. In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of local economy and local tax income system, we deducted two principle components and we stereotyped regions in 4 types. In the result, we found that the gap of local economic power affected local tax income and the gap was severe in rapid population aging region. There is a limit in interpretation of this study's result.

Because the local economic structure, the source of local tax income, is influenced by local network and international economy but these factors couldn't be put together.